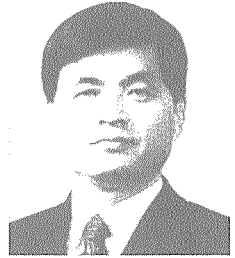


중국의 전자IT기기 수출입시장

-1998년 ~ 2002년-



본회 전자산업연구소장
윤 동 훈 경제학박사

중국 전자IT 수입

주요 전자제품 수출국들의 대중 수출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등 4개국은 중국 전자IT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숙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퇴조의 기미가 역력하나, 일본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정상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전자IT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 세계 IT경기의 회복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은 디지털시대를 주도하는 전자IT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내수와 더불어 수출입시장도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5년간 중국의 10대 수입 전자IT제품시장을 살펴보면, 한국이 경쟁 상대국인 일본과 대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을 기준으로 1998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7개 품목에서 순위가 올라갔다. 4개국 중

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서 한국의 전자IT기기의 대중 수출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개 품목에서는 순위가 변동이 없었고, 1개 품목에서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대만은 5개 품목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4개 품목에서 순위가 움직이지 않았고, 1개 품목에서는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은 등위가 상승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미국은 7개 품목에서 등수가 떨어졌고, 3개 품목에서 보합을 나타냈다. 일본은 6개 품목에서 등수가 하락했고, 4개 품목에서 보합을 보였다.

지난해 전자IT기기의 10대 수입 품목중에서 1위 품목을 보면, 일본이 3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전자강국의 위상을 지켰다. 중국의 전자IT 수입 규모 1위인 개별소자 반도체, 4위인 축전기, 7위인 축전지 분야이다.

대만과 미국, 한국이 각각 2개 품목에서 나란히 1위를 점하였다. 대만은 수입 규모 2위인 액정디바이스, 3위인 인쇄회로 분야를, 미국은 수입규모 8위인 개인용컴퓨터(PC), 10위인 냉장고 분야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입 규모 5위인 휴대용전화기, 9위인 광디스크드라이브 분야를 각각 차지했다. 싱가포르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분야에서 1위를 점하였다.

● 품목별 수입시장

수입 규모 1위인 개별소자반도체의 수입은 1998년 중 17억 88백만 달러 에서 2002년 중 58억 80백만 달러로 228.8% 증가했다. 수입 규모 2위인 액정디바이스는 1998년 중 2억 34백만 달러에서 2002년 중 45억 7백만 달러로 무려 1,826.0% 증가했다. 한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 규모 3위인 인쇄회로는 1998년 중 8억 63백만 달러에서 2002년 중 24억 81백만 달러로 187.4% 증가했다. 한국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 수입 규모 4위인 축전기는 1998년 중 7억 78백만 달러에서 2002년 중 24억 18백만 달러로 210.7% 증가했다. 한국의 증가율이 비교적 큰 편이다.

수입 규모 5위인 휴대용전화기는 1998년 중 4억 10백만 달러에서 2002년 중 23억 75백만 달러로 479.2%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대중 휴대폰전화기의 수출은 획기적으로 급증했다.

● 국별 수입시장

개별소자반도체의 경우, 일본은 1998년과 2002년 중 1위를 유지하였으며, 6억 35백만 달러에서 17억 25백만 달러로 171.6% 증가했다. 대만은 같은 기간에 2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3억 80백만 달러에서 9억 27백만 달러로 143.9% 증가했다.

미국은 4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1억 74백만 달러에서 6억 81백만 달러로 291.3% 증가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한국은 5위에서 변동이 없었고, 1억 25백만 달러에서 3억 74백만 달러로 199.2% 증가했다.

액정디바이스의 경우, 대만이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43백만 달러에서 20억 10백만 달러로 4,574.4%나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 5위에서 2위로 뛰었고, 10백만 달러에서 10억 24백만 달러로 10140.0% 급증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개별소자반도체 수입국〉

순위	국 가 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	Japan	635,658	-	878,080	38.1	1,185,399	35.0	1,168,782	-1.4	1,725,968	47.7
2	Taiwan prov.	380,416	-	503,859	32.5	618,830	22.8	640,330	3.5	927,678	44.9
3	United States	174,296	-	221,581	27.1	270,189	21.9	256,051	-5.2	681,126	166.0
4	China	60,765	-	101,392	66.9	196,207	93.5	280,306	42.9	578,630	106.4
5	Malaysia	66,589	-	115,667	73.7	209,620	81.2	201,011	-4.1	429,558	113.7
6	Korea Rep	125,823	-	178,468	41.8	308,746	73.0	295,255	-4.4	374,374	26.8
7	Hong Kong	205,428	-	234,643	14.2	275,264	17.3	286,374	4.0	364,119	27.2
8	Singapore	26,000	-	35,406	36.2	66,206	87.0	113,740	71.8	148,225	30.3
9	Thailand	14,915	-	26,207	75.7	63,461	142.2	62,754	-1.1	140,403	123.7
10	Philippines	14,077	-	22,546	60.2	39,970	77.3	72,149	80.5	139,201	92.9

〈인쇄회로 수입국〉

순위	국가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Taiwan prov.	283,335	-	336,122	18.6	305,273	-9.2	412,705	35.2	741,611	79.7
2	Japan	212,157	-	268,871	26.7	395,714	47.2	485,783	22.8	543,741	11.9
3	China	54,378	-	91,617	68.5	137,951	50.6	208,352	51.0	448,462	115.2
4	Korea Rep	42,638	-	75,218	76.4	104,850	39.4	151,981	45.0	275,347	81.2
5	Hong Kong	74,730	-	88,586	18.5	115,931	30.9	139,665	20.5	192,959	38.2
6	Singapore	78,401	-	87,972	12.2	198,578	125.7	78,050	-60.7	79,645	2.0
7	Malaysia	11,111	-	14,709	32.4	62,892	327.6	167,725	166.7	58,516	-65.1
8	United States	34,412	-	39,200	13.9	40,983	4.6	33,680	-17.8	34,921	3.7
9	Thailand	9,336	-	19,165	105.3	35,168	83.5	18,767	-46.6	21,360	13.8
10	Philippines	1,800	-	4,065	125.9	14,113	247.2	12,167	-13.8	15,181	24.8

일본은 1위에서 3위로 밀려났지만, 1억 5백만 달러에서 9억 5천만 달러로 804.7% 증가했다. 미국도 4위에서 6위로 후퇴했고, 15백만 달러에서 46백만 달러로 206.6% 증가했다.

인쇄회로의 경우, 대만이 1위를 고수하였으며, 2억 83백만 달러에서 7억 41백만 달러로 161.8% 증가했다. 일본은 2위를 유지하였으며,

2억 12백만 달러에서 5억 43백만 달러로 151% 증가했다.

한국은 5위에서 3위로 두 단계 올라섰으며, 42백만 달러에서 2억 75백만 달러로 554.7% 크게 증가했다. 미국은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후진했고, 34백만 달러에서 34백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휴대용전화기 수입국〉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Korea Rep	4,235	-	73,512	1,635.9	93,407	27.1	203,705	118.1	1,917,659	841.4
2	Taiwan prov.	19	-	28,001	143,936.8	242,112	764.7	225,796	-6.7	339,891	50.5
3	Japan	9,527	-	58,565	514.7	166,483	184.3	183,342	10.1	52,019	-71.6
4	Finland	946	-	25,477	2,593.1	388	-98.5	552	42.5	19,992	3,519.8
5	France	4,180	-	17,785	325.5	43,201	142.9	54,355	25.8	19,916	-63.4
6	Hungary	-	-	-	-	37	-	-	-	6,352	-
7	Thailand	-	-	-	-	-	-	-	-	6,250	-
8	Malaysia	-	-	18,111	-	122,582	576.9	30,764	-74.9	4,892	-84.1
9	United States	2,319	-	9,592	313.6	3,880	-59.5	402	-89.6	4,393	994.0
10	China	1	-	13	2,112.0	-	-	2,017	-	1,276	-36.7

축전기의 경우, 일본이 1위를 고수했고, 3억 11백만 달러에서 8억 43백만 달러로 171.0% 증가했다. 대만도 2위를 고수했고, 1억 67백만 달러에서 4억 97백만 달러로 197.6% 증가했다.

한국은 4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67백만 달러에서 2억 44백만 달러로 264.1% 증가했다. 미국은 6위에서 7위로 떨어졌으나, 13백만 달러에서 45백만 달러로 246.1% 증가했다.

휴대용전화기의 경우, 한국이 2위에서 1위로 정상에 올라섰으며, 423만 달러에서 19억 17백만 달러로 47,825.0%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대만은 6위에서 2위로 약진했으며, 19백만 달러에서 3억 39백만 달러로 1,684.2% 증가했다. 일본은 1위에서 3위로 밀려났으며, 952만 달러에서 52백만 달러로 477.7% 증가했다. 미국은 4위에서 9위로 크게 하락했으며, 231만 달러에서 439만 달러로 90.0% 증가했다.

다소 줄어들었다. 광디스크드라이브는 4.4억 달러에서 15.8억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각종 드라이브를 합제한 입력장치의 수출은 28.8억 달러에서 39.7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다.

한편, 디스플레이장치는 17.3억 달러에서 57.2억 달러로 증가했고, 레이저프린터가 3.9억 달러에서 15.8억 달러로 증가했다. 스캐너가 1.4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입출력장치의 수출은 34.7억 달러에서 98.5억 달러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개별소자반도체는 1998년 중 7.5억 달러에서 2002년 중 18.3억 달러로 늘어났다. 각국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구성 품목들이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것이다. 인쇄회로의 수출도 9.3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인쇄회로는 현지에서 많이 생산해 본국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품목별 수출 증감

중국의 전자IT기기의 수출은 지난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들면서 수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의 전자IT산업이 본격적으로 외자 유치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기준,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한 품목을 살펴보면, 휴대용전화기의 수출은 1998년의 3.5억 달러에서 2002년 중 52.8억 달러로 15배 이상 늘었다. 이 중 2000년에 급증했음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1999년 6.5억 달러에서 2000년에 26.3억 달러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HDD는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말미암아 1998년에 19.3억 달러에서 2002년 중 16.8억 달러로



국별 수출 증감

휴대폰전화기의 수출은 2002년 기준 미국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은 1998년 중 0.1억 달러에서 2002년 중 16.1억 달러로 늘어났다. 홍콩으로 수출은 13.1억 달러로 2위에 랭크되었다. 독일로는 8.9억 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으로 휴대폰전화기의 수출은 3.1억 달러에 달했다.

위성방송수신기는 1998년에 수출 실적이 매우 미미했고, 독일과 홍콩 등 수출 대상국도 수 개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출 금액과 대상국가수에 있어 크게 확대되었다. 독일으로의 위성방송수신기 수출이 0.14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에 0.14억 달러, UAE에 0.12억 달러로 수출하여, 2위와 3위를 나타내었

〈휴대폰전화기 수출국〉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United States	11,283	-	27,459	143.4	134,659	390.4	504,723	274.8	1,618,570	220.7
2	Hong Kong	224,529	-	483,313	115.3	1,333,901	176.0	1,541,711	15.6	1,312,741	-14.8
3	Germany	7,336	-	84,161	1,047.3	502,334	496.9	694,630	38.3	893,226	28.6
4	Korea Rep	18	-	30	66.9	45	47.9	299,899	666,342.7	319,687	6.6
5	Hungary	-	-	-	-	40,751	-	10,336	-74.6	207,928	1,911.8
6	Thailand	1,750	-	1,366	-22.0	7,813	472.0	63,690	715.2	144,801	127.4
7	Singapore	32,763	-	21,099	-35.6	36,200	71.6	87,816	142.6	129,500	47.5
8	Austria	629	-	-	-	-	-	11,359	-	106,619	838.6
9	Malaysia	18,060	-	3,263	-81.9	231,672	6,999.9	299,162	29.1	97,800	-67.3
10	France	227	-	13,185	5,697.4	127,798	869.3	58,443	-54.3	92,194	57.8

다. 위성방송수신기의 수출도 2000년 들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휴대용컴퓨터의 수출도 크게 늘어났다. 홍콩이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홍콩으로의 수출은 1998년 중 0.19억 달러에서 2002년 중 8.8억 달러로 증가했고, 일본으로의 수출도 4십만 달러

에서 4.5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일본으로의 휴대용컴퓨터의 수출은 일본 현지 공장산일 가능성이 많은 편이다. 미국과 영국으로의 휴대용컴퓨터의 수출도 3.4억 달러, 1.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공장에서의 휴대용컴퓨터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다.

〈위성방송수신기 수출국〉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Germany	8,427	-	9,624	14.2	19,360	101.2	10,954	-43.4	14,983	36.8
2	Indonesia	-	-	66	-	5,334	7,960.2	13,411	151.4	14,148	5.5
3	United Arab Emirates	-	-	-	-	4	-	606	13,793.2	12,143	1,902.8
4	France	-	-	80	-	639	698.6	4,260	566.8	4,737	11.2
5	Netherlands	-	-	441	-	57	-87.0	85	48.8	4,514	5,207.7
6	India	-	-	15	-	1,102	7,187.3	1,701	54.4	3,706	117.9
7	Hong Kong	4,277	-	469	-89.0	2,464	425.6	1,830	-25.7	3,492	90.8
8	United States	2	-	161	6,393.4	258	60.2	1,693	557.3	2,756	62.8
9	Singapore	-	-	-	-	1,770	618,781.1	771	-56.5	2,662	245.5
10	Italy	-	-	275	-	1,676	509.4	1,518	-9.4	2,562	68.8



지방정부 전자정책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전자IT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전자IT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적인 모델은 중앙정부가 입안을 하지만, 개별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내외 자분을 유치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IT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지역의 정책을 살펴본다. 베이징(北京)은 중국의 수도로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에 21세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 IT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지역을 발전시킬 경제적 원동력이 부재한 베이징은 중관촌을 건설하여 IT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관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며, 중관촌과기원구가 바른 명칭이고, 해정원, 풍대원, 창평원, 전자성과기원, 역장과기원 등 5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경 북서쪽에 위치한 해정구가 중관촌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8년 5월에 오픈된 이 지역에 청화대학, 북경대학 등 73개 대학과 230여 개의 연구소가 모여 있고, 4,500여개의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10만 여명의 기술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다. 상하이시는 과거 섬유산업이 주도하였지만, 현재 IT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설계,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 선진기술과 접목된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하이시는 매년 GDP의 2.5%를 연구개발

에 투자하여 공업 총생산에서 첨단산업의 비중이 25%를 상회하도록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상하이시가 금융분야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금융분야의 IT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 전자기기와 인프라가 설치되고 있다.

베이징시와 인접한 항구도시인 천진(天津)시는 전자, 자동차 등 중공업이 밀집된 공업단지를 운영하면서 현대화된 국제항구의 도약과 화북지역의 경제 중심으로 자리잡는다는 마스터플랜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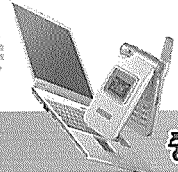
광둥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를 가지고 있으며, 1984년에 오픈된 국가급 개발구인 천진경제기술개발구는 2800여개의 외자 기업이 가동 중이며, 이 구에 1996년 6월 한국 기업 전용공단이 조성되었다.

기존 전통산업의 IT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산업 자체를 첨단기술산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전략을 택한 천진시는 외국 투자의 유치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기술집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정부는 중형 규모의 공업구를 만들어 기존 제조업체들을 IT나 신소재, 첨단기술, 생물 등 4개 분야로 전환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중점 기업산업군을 지정해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광둥성은 2000년 기준, 중국 GDP의 10.8%, 무역의 35.9%, 외국인 직접투자의 27.7%를 점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성급 중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방정책 이후, 1980년 8월 심천, 주해, 산둥



등 3개 지역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광둥성은 고속 성장을 질주하고 있다. 홍콩을 성내에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해외 화교들의 고향이 광둥성이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둥성의 수출은 외자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PC 등 첨단산업이 광둥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천, 동완, 광주 등 3대 도시가 광둥성 전체 수출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심 공업단지다.

도시/농촌전자시장

중국전자기기의 보급률은 경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도시지역에서 성장단계를 지나 이미 부분적으로 포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일반 전자제품에서 고급 전자제품의 선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칼러TV의 보급률은 3년전 조사통계에 의하면, 111.6으로 100가구에서 칼러TV의 보유대수가 111대를 상회한다는 뜻이다. 도시지역에서 칼러TV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냉장고의 보급률은 77.7이고, 세탁기의 보급률은 91.4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요가 최근 정체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전기기의 소비는 대륙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소비 패턴이 성립되어 있어 같은 국가안에서도 공통점과 다른 점이 공존되고 있다.

중국 사회의 구조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인력에 의한 세탁보다

는 기계에 의한 세탁을 선호함으로써, 세탁기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냉장고가 비교적 더디게 보급되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저장된 음식보다 요리된 음식을 즉시 먹는 식습관이 내려오고 있어,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소득증가에 비례할 정도로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 광둥 등 무덥고 습기가 많은 남부지역은 에어컨 보급률이 80을 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건조하고 시원한 날이 많은 동북부지방은 에어컨 보급이 별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서구적 취향을 가진 청소년 소비계층에게는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등 최신 디지털제품의 인기가 높고,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다. 디지털 전자기기에 관한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를 맞고 있는 것이다.

개방정책은 대도시와 동남부 해변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됨으로서, 소득의 증가와 문화생활의 향상은 주로 도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여건에 비추어볼 때, 가전제품의 가격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가전수요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있는 등 가전기기가 기능할 수 있는 각종 여건이 잘 구비되어 있으며, 인구의 30% 정도인 4억명이 도시지역에 몰리고 있다. 도시민들은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에 속하고 있으며, 개인 저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전자제품의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 일반 범용 전자기기는 도시 가구에서 대부분 구입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점차 고

가이거나 고급 전자기기, 신형 디지털 기기쪽으로 방향이 설 공산이다.

도시화가 추진되고,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 증가는 정부에서 신규 주택 개발이 도상기에 있으며, 또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어 가전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민의 주택 구입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택건설 투자액도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있는 등 신규 가전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신식산업부가 조사한 가전시장 결과에 의하면, 2000년부터 5년간 도시민들의 가전수요가 컬러TV가 20%, 냉장고와 에어컨이 각각 15% 등 꾸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도시가구들이 사용하는 TV는 80년대 개방정책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 구입된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새로운 디지털TV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만 구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했던 에어컨은 최근 대량 생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대폭 하락하고 있어, 일반 중간층의 에어컨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기업과 청소년층에서 급속하게 애용되면서 PC와 함께 DVD플레이어, VCD 등 새로운 디지털 가전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고속통신망, 무선통신 등 인터넷을 사용이 활성화되어, 이에 사용될 수 있는 주변 전자기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농촌 인구는 대략 9억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전자제품에 대한 거대한 잠재시

장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전제품의 농촌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개발의 여파와 농촌소득의 향상과 함께 크게 높아질 것이다.

농촌의 가전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촌지역에서 가전수요가 현실화된다면, 억 단위 이상의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공급되어야 할 정도로, 농촌지역은 중장기적으로 전자업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무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컬러TV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농촌가구는 32%에 달하고, 세탁기는 17%, 냉장고는 21%에 달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가전제품의 가정내 비치에 더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민들이 이미 가전제품의 생활화가 되고 있음에 비해 농촌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이 일반화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일보에 의하면, 상하이시민은 주택구입에 30%, 컴퓨터에 15%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촌주민은 가전제품에 22%, 실내장식에 18% 등 높은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농촌소득은 도시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말미암아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은 6천 달러에 근접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2천 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